



해외양돈뉴스

- 홍보부 -

미국 돈육생산, 통합(Integration) 경영체제로 급속히 진행

양돈부문은 금후 경영체와 가공업자가 각기 생산관리 등을 실시할 수직(垂直)통합(統合)의 관계가 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96년의 양돈 경영체수(經營體數)는 157,450개소 이었으나 이는 전년에 비해 13%가 감소한 것이고, '90년과 비교하면 41%나 감소한 것이다.

한편 2천두 이상의 대규모 경영체의 비율은 3.1%에 불과하나 두수의 점유율은 51%를 초과하고 있다. 금후 10년간은 이들 대규모 경영체에서 효율적인 경영으로 돈육생산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경쟁력의 저하와 환경요인 등에 대한 소규모 경영의 급속한 이탈과 대규모 경영으로의 생산집중에 의한 구조변화는 미국에서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돈육가격, 전년 6월대비 2% 증가

올 봄부터 시작된 돈육의 가격강세와 사료값의 인하로 인하여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다. 지난 6월 1일에는 5,820만 두의 돼지가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 집계는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가, 올 3월1일에 비해서는 4%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자들은 종돈 두수의 소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6% 더 많은 새끼돼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인의 1인당 돈육 소비량은 똑같은 생산품, 수출업자의 증가, 돼지 두수의 증가로 인하여 1997년에 1파운드 50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 상품성장률이 8%에 가깝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1인당 돈육 소비량도 3파운드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돈가는 100파운드당 \$50중반(≈99,000원/100kg)에서 결정되리라 예견되었고 1998년에는 이보다 \$2~3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돈육의 강세와 낮은 사료가격으로 1999년에는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돈육 수급의 장기전망 개요

미국 돈육의 생산량은 '99년까지 일관(一貫)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출량도 일본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생산과 수출이 공히 더욱 증가될 것

<표1> 돈육 수급 장기전망

구분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천톤	8,281	8,677	8,847	8,904	8,910	8,902	8,924	8,958
수입량	천톤	274	272	271	270	267	262	258	254
수출량	천톤	490	495	508	533	558	583	608	633
소비량	천톤	8,083	8,471	8,627	8,659	8,636	8,598	8,591	8,596
사양두수	천두	59,655	62,311	63,453	63,840	63,877	63,826	63,973	64,201

으로 예측된다.<표1참조>

'97년도 세계 곡물생산 작년도와 비슷 예상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최근 '97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을 18억 8,700만톤으로 예상해, 생산량이 기록을 경신했던 작년도 실적을 1%미만으로 능가하면서 평균 추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금년도 실제 생산량이 예상대로 실현된다면 97/98년도 곡물생산량은 소비 예상량을 충족 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며 재고량도 95/96년도에 급격히 줄어든 이후 2개 연도 계속 상당량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97/98년도 곡물 재고 대 소비 비율은 16%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FAO가 세계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라고 여기는 17-18%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7/98년도말 세계 밀 재고량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곡물시장 수급은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 예상은 현재의 농작물 성장상태와 향후 정상적인 기상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만일 북반구의 나머지 봄 작물 파종이나 남반구의 겨울 작물 파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가 일어나거나 아시아의 열대우기에 변화가 발생하면, FAO의 세계 곡물수급 예상과 그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상황 예상도 함께 변할 것이다.

일본 8월 중순, 휴일 기간중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수요증가예상

일본에서의 8월 중순경 시작되는 휴일 기간중에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동 돼지고기의 수입은 햄이나 소세지 가공업체들이 아직도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96/'97회계년을 정리해 보면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에 돼지고기 소비량은 1.4% 증가했다.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수입은 24.1% 증가해 자급률은 59.7%로 2.6% 증가했다. 일본 수입 돼지고기 시장 가운데 미국이 확보율을 22%로 확대시켰고, 대만은 40%를 유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고수했다.

돈육수입 급증

7월들어 일본의 돈육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장성 발표에 따르면 7월의 일본 식육 수입량은 262천톤으로 지난 6월보다 10만톤이 늘어났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돈육이며 7월들어 세이프가드 해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대만산을 대신하여 덴마크산이 7월 한달에만 65천톤이 수입되었고 미국산이 2만톤, 캐나다, 한국산이 각각 1만톤 정도를 차지했다.

유럽 돼지가격 여전히 하락세

네덜란드의 돼지콜레라 파동 발생과 덴마크산 냉동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유럽 비육돼지 시장에 단기적인 공급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유럽의 비육돼지 가격은 현재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지난 2월 비육돼지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어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자들 사이에 일기 시작한 돼지고기 기피현상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재의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높게 상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98년에는 비육돼지의 생산자 가격이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벨기에 돼지콜레라 퇴치에 성공

유럽 양돈업계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확산되며 피해가 커져 돼지콜레라 퇴치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돼지콜레라 전염 초기에 있는 벨기에가 돼지콜레라 전염을 막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져 주변국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7월 2일 네덜란드 국경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보출트라는 소도시에서 처음 돼지콜레라 발병 사실이 보고되었는데, 이튿날 또 다시 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벨기에 농업당국은 향후 벨기에의 돼지콜레라 전염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대대적인 돼지콜레라 퇴치작전에 돌입했다.

벨기에 당국은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네덜란드 접경 지역인 웨스트 플랑다스와 립브르그 지방에서 5만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축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감염 우려 지역의 돼지를 광범위하게 도축 해 더 이상의 전염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벨기에 당국은 벨기에의 돼지콜레라 발생원인을 추적중인데, 현재까지는 네덜란드 운송회사가 감염된 돼지를 벨기어로 유입했거나 벨기에 돼지가 감염된 트럭을 통해 네덜란드로 운송되었을 경우가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

네덜란드의 돼지콜레라 파동으로 돼지 25% 도살 계획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내 돼지 사육두수의 25% 이상을 도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도살계획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지는 않고 1998년 초 돼지 쿼터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 400만마리가 도살될 이번 계획은 이미 네덜란드 내각에서 승인되었고 의회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이다.

네덜란드의 돼지 사육규모가 이와 같이 돼지콜레라로 인해 감소하면서 1998년 가을 이후 EU의 돼지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네덜란드 사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미 돼지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EU의 돼지 공급량이 부족해질 염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원래 돼지 콜레라 발생 지역인 남부지역 이외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견되었음을 농무장관이 확인하였다. 이번의 경우는 동남부 지역인 Gelderland에서 발견되었는데 동지역은 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견농장의 20킬로 미터 주위에 가축 및 분뇨의 운송이 금지되었으며 검역 지역내에서 동 질병을 예방하는 도축 방법이 시행되었다. 이번의 경우는 지난 2월 돼지 콜레라가 발견된 이래 339번째 사건이다.

